

# 지역문화예술교육 위한 첫걸음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통합 간담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의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5월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 시작을 앞두고 모인 첫 자리로, 4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꿈다락 문화학교 사업에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56개 운영단체 기획자, 강사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른 등 대상은 다르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에 있어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다는 기획 의도를 담았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의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와 원활한 사업운영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기본 이해를 주제로 한 전문의부강사 조빙 강 의뿐만 아니라, 사업운영과 예산집행 시 유의 사항과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실행평가제 등을 안내했다.

또한 재단은 사업 운영의 주요 애로사항인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축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원지도'를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변화와 확산인 만큼 모두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이번 통합 간담회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도민과 만나게 될 설렘과 동시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꾸려야 할지 걱정되기도 할 선정단체에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본부 교육문화팀(063-230-7462, 7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온 가족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

한국전통문화전당, 4일 '마루달 운동회'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임장 김도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는 '마루달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마루달 운동회는 '우리 함께 놀자 전통놀이'를 주제로 오는 4일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우리놀이터 마루달과 야외마당 2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는 △공기놀이 △산가지놀이 △마당놀이 △전통 판놀이 △전통놀이 보드게임 등 전통놀이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야외마당에서는 △고무신 던지기 △무궁화꽃이 함께 피었습니다 △딱지놀이 △협동 제기 △한마음 줄넘기 등 12팀 24가지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다채로운 놀이 승부를 겨룬다.



이번 운동회는 참여도를 높이고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놀이 승부에서 승리하면 팀마다 엽전을 획득, 모은 엽전은 특별히 마련된 우리놀이 장터에서 우리놀이 관련 다양한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16명의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가 운영진으로 합류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전통놀이를 설명하는 등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놀이 운동회는 전당의 자랑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전통놀이를 소통하며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운동회를 찾아 함께 웃고 뛰놀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c.or.kr)을 참고하거나 우리놀이터 마루달(063-281-154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로고 활용 어린이 창의성 뽐내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수상작 33점 발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는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리한상' 경주 유림초등학교 류현준 학생 작품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는 소리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리축제 로고를 활용해 자유롭게 꾸미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리기 대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접수된 총 342점의 그림 중 33점의 그림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여름을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의 표현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스스로 그것들을 잘 표현해냈는지를 고려해 좀 더 돋보이는 작품으로 선정했

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소리한상'에는 오선지(서양음악)와 장구(한국음악)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 표현한 류현준 학생(경주 유림초)이 수상을 했다. 이어 서정우(인천 가천초), 송

연서(전주 전라초) 학생이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바다를 상상하게 하는 그림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상그이상'에 선정됐다.

또한 박세라(전주 전라초), 박진형(용천초) 학생 등 총 10명의 학생이 '기발하상'을 받았으며, 강하운(서울 개포초), 김민영(전주삼남초), 김리아(동탄 목동초) 학생 등 20명의 학생이 '잘그렸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수상을 한 어린이들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주어지며, 소리축제 기간 중 축제장 방문 시에는 유료 입장권(1인 2매)과 기념품이 증정된다. 기념품 수령 방법은 당첨자들에게 개별 안내되며, 분상을 비롯한 모든 응모작은 소리축제 공식 SNS 채널 및 축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2-839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 관광두레 PD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4월 30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오픈오피스에서 전북관광두레 PD(이하 PD) 10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 스스로 PD로 참여해 지역 관광의 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PD의 주요 활동은 △지역 관광 분야 주민공동체 발굴 및 지원 활동, △지역 관광사업 현황 공유, △관광두레 및 주민사업체 등의 적극적 홍보 등이다.

선발된 PD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주도형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부터 선발된 PD는 자생력 있는 관광 분야 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우리동네생활문화공간지원사업 업무협약

전주문화재단은 2일 공유화음실(완산구 동문길 60)에서 '2024 우리동네생활문화공간지원사업'에 선정된 1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선정 단체들은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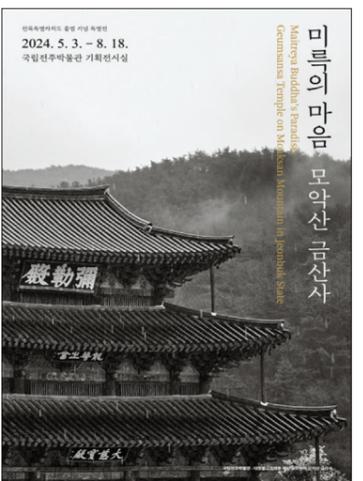
이에 따르면 '2024 우리동네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은 생활문화공간발굴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을 목적으로 유형 I과 유형 II로 나눠 공모했다.

유형 I은 책방,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 생활문화공간을 대상으로 300~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형 II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교육, 발표 등의 활동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선정 단체들은 협약기간인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과 함께 문화공동체 관계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 금산사,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주지 일원)와 공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를 개최한다.

5월 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미륵신앙의 성지로서 지역민을 위로하고 희망의 안식처가 되어준 모악산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로 금산사 미륵전 법화림보살 복장물 등 9건 117점이 출품된다. /장은성 기자

##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월을 맞아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벽골, 도장으로 찍어내는 아름다운 소장'이라는 주제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소장품 전시는 박물관 로비에 별도의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관람객의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람객의 증대와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 정신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2024년 5월 5일부터 12월까지 총 8번 월별 소장품 전시로 개최된다.

그동안 수장고에 소장되었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선정해 소장품을 교체,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일상에서 사용하던 이색 유물을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떡 표면에 도장처럼 눌러 떡의

모양과 무늬를 찍어내는 데 쓰는 도구인 '떡살'을 조명하고자 기획전을 준비했다. 떡살은 '떡손'·'떡판', 지역에 따라 '도장'이라는 명칭과, 명문에 의하면 '병판(餅板), 성황판(城皇板), 화병판(畫餅板), 화餅板), 수복판(壽福板)'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떡살'은 흰떡이나 절편의 표면에 참기름을 바르고 떡살을 대고 눌러서 문양을 새기는 것으로 재질은 목재나 도자기 등으로 만든다. 떡살의 문양은 동물, 식물문무, 부귀다복 등을 기원하는 길상문무, 장수와 해로를 바라는 국수문무 등 다양하며, 이러한 떡살의 문양은 인간의 다양한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이색 유물을 살펴봄으로써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 김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김제시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첫 공연으로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 한국 가곡 콘서트'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k-pop이 세계를 누비고 트로트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 사)드림필이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가곡연주를 선보이며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잊고 지냈던 우리 가곡의 우수성과 작품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최도연, 메조소프라노 이하나, 테너 박진철, 최호준과 전주소년소녀

합창단 산하 중창단인 '소리울 중창단' 어린이들이 함께해 단조로운 가곡 음악회가 아닌 전문 예술법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다.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주옥같은 가곡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더해 진솔하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될 예정이다.

특히 100년 전 최초의 가곡인 '봉선화'를 시작으로 '동무생각', '반달', '오빠생각'과 '보리밭', '비목', '그리운 금강산' 등 시대별로 다양한 곡으로 풍성한 무대를 마련했다.

관람권 배부는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 남원도예가협회, 창립기념 전시회

남원도예가 협회(회장 이병구)는 5월 19일까지 남원아트센터에서 창립기념 전시회 'itda'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대표작가 이병구와 김영희, 소수신, 소현미, 이학구, 이혜연, 장수경, 전현희 작가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의 남원지역 도예작가들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창립전은 작가마다 다른 작품의 퍼즐을 모아 이어준다는 의미와 더불어 과거의 남원 도자 역사와 현대도자를 이어준다는 뜻을 가진 'itda(itda)'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협회 관계자는 "남원 도예 작가들이 교류와 화합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응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며, "남원 도자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